

중기부·티메프 협업 중단...소상공인 지원 '난항'

'소담 스퀘어 역삼' 폐쇄 후 새 사업자 선정 못해 라이브커머스·컨설팅 등 교육·판매지원 차질 우려 김원이 "중기부 뚜렷한 대책 없어...대책 강구해야"

티메프 사태로 중소기업부와 티메프의 협업이 모두 중단된 가운데 위메프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 사업 '소담 스퀘어' 한 곳이 최근 폐쇄돼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티메프가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커머스 교육·컨설팅, 라이브방송 기획과 촬영·편집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곳이다. 광주의 경우 KBC 광주방송이 '소담 스퀘어 광주'로 선정되는 등 전국에 총 9곳이 있으나 위메프가 운영했던 소담 스퀘어 역삼점은 최근 문을 닫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11일 중소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는 2020년 9월 소담 스퀘어 역삼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소담 스퀘어 역삼점은 총 143평 규모로 촬영 스튜디오와 편집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위메프 직원 5명이 상주하며 지원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소담 스퀘어 역삼은 최근 위메프 사태로 인해 올해 12월까지인 업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올해 8월 8일자로 운영을 중단했다. 문제는 문을 닫은 소담 스퀘어 역삼

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낸 기관이라는 점이다. 중기유통센터 자료에 따르면 역삼점은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소상공인 업체 총 2천782개 사를 지원했고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이용 실적은 8천97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원받은 업체만 256개 사, 스튜디오 이용 건수는 1천234건에 이른다. 소담 스퀘어 광주점의 경우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원업체 1천500개 사, 스튜디오 이용 실적 3천574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관련 기관의 운영 중단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중기부는 아직 새 사업자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5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공동으로 소담 스퀘어 충북 사업자로 선정됐던 티몬 역시 7월30일자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충북 지역 사업 역시 진행 중단 상태다. 소담스퀘어 역삼에 투입된 국비는 해마다 7-8억원 규모로 올해는 현재까지 3억9천400만원이 집행됐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된 탓에 인프라 구축비가 포함된 첫째 국비 9억3천만원 중 일부와 올해 지급한 국비 일부를 환

수받아야 하는 데 기업회생 기로에 놓인 위메프와의 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기획재정부 협의 사항으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중기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중단된 센터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한편,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에 재무 상태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尹, 국정 긍정 평가 25.8%"

4·10 총선 직전 35.6% 대비 9.8%p ↓ ...부정 평가는 8.4%p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5%대에 그쳐 지난 4·10 총선 직전 35%대에 비하면 9.8%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1일 뉴스피터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8% (매우 잘함 11.3%), 부정 평가는 69.3% (매우 잘못 58.9%)로 격차가 컸다. 잘 모름은 5.0%였다. 앞서 뉴스피터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한 조사한 마지막 조사(4월2-3일, 전국 1천명)에서 긍정 평가가 35.6% (매우 잘함 20.2%), 부정 평가는 60.9% (매우 잘못 50.2%)였던 것과 비교하면 5개월여 만에 긍정 평가는 9.8%p 급락하고 부정 평가는 8.4%p 급등했다.

'범진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8%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2%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8.1%, 김부겸 전 국무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지사 4.9%,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1.7% 등이었다. 이 밖에 22대 국회 '협치 실종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5.4%가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꼽은 반면, 25.6%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野의원 12명 '尹 탄핵연대' 구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11일 결성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들을 확보하는 등 탄핵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주도로 만들어진 모임에는 모두 12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9명 포함됐다. 민주당에서 김정호·강득구·문정복·민형배·박수현·북기왕·김준혁·부승찬·양문석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의원이, 진보당에서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특검법·지역화폐법, 우의장 "19일 처리" 주문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야당도 한걸음 물러서 달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법안 상정권을 전 우원석 국회의장이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여야에 제시하면서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안 및 더불어민주당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

안에 대해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3개 법안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에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며 여야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우 의장은 "어렵사리 여야의정이 사

회적 대화의 입구에 섰다.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야당이 특검법 강행에서 한걸음 물러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두 건의 특검법안의 경우 그동안 여러 조사와 수사가 있었지만,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많다. 국회 역시 (특검법을 통과시킬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회의장으로서의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금주 "농산물 절도 기승"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최근 농산물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스럽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2천655건의 농산물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평균 43%로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전남 지역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전남에서는 307건의 농산물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9억여원에 달했다. 문 의원은 "마을에서 낫선 차량을 발견할 경우 번호판을 기록해 봤다가 경찰에 제보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까운 지주대나 파출소에 '빈집 사전예약순찰제'를 요청해 농작물 절도를 예방할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